



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?!

컬러링북

글: 다니엘 콜레이코

그림: 매튜 마노스

번역자 김유리

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,

이 책은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, 가족 및 의료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. 한 명의 부모로서, 저도 제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동시에, 예방주사를 맞기 싫어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는 아이를 붙잡아야 하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.

약사로서 저는 매년 가족 모두가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챙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. 2009년, 저는 26살의 바쁜 학생이었고 특별한 질병도 없었기에, “이번엔 독감 주사를 건너뛰자” 라고 생각했죠. 얼마나 아프겠어? 라고 말이죠. 그런데 그 해는 하필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해였습니다. 저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. 당시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없어서, 부모님이 20분 거리에서 제 아파트 현관 앞까지 수프를 갖다 주셨죠. 회복하는 데 2주가 걸렸고, 그때의 기억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.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매년 10월이면 온 가족이 약국에 가서 소매를 걷습니다.

이 글을 쓰는 현재, 텍사스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두 아이가 홍역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같은 부모로서, 그 아이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. 제때 예방접종만 받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.

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함께 준비함으로써 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길 바랍니다. 소중한 축하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. 특별한 날에도, 친구와의 시간에도 함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,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이의 예방접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,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거나

<http://VaccinateYourFamily.org> 을 방문해 주세요.

여러분을 응원합니다.
콜레이코 박사 드림



안녕! 내 이름은 개비야.
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.

가끔 아빠가 나를 병원에
데려가서 주사를 맞게 해.
근데, 나 주사 맞는 거 정말
싫어!



올해는 주사를 안 맞았더니
정말 많이 아파졌어.
그래서 내 가장 친한 친구
유키의 생일파티에도 못
갔지 뭐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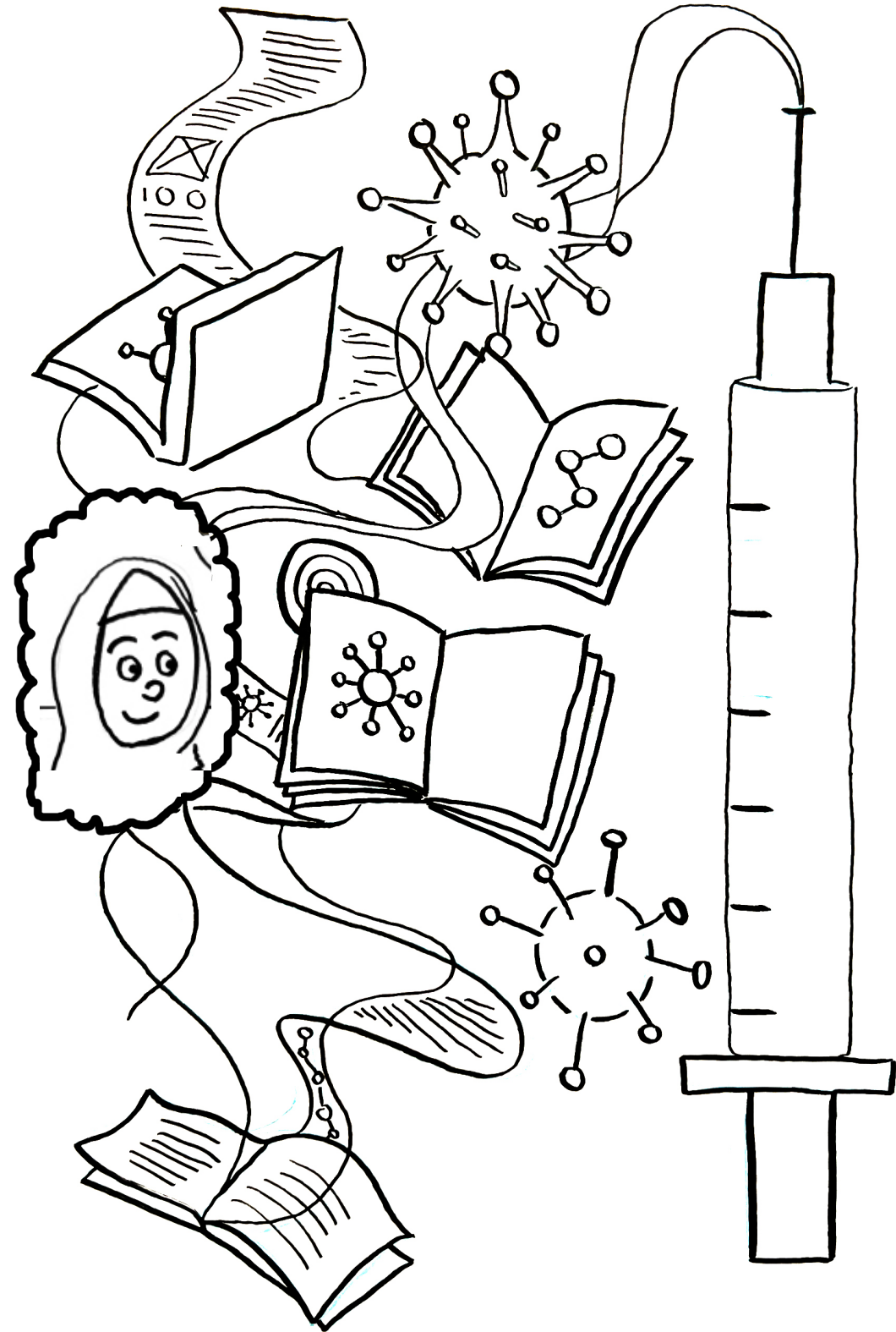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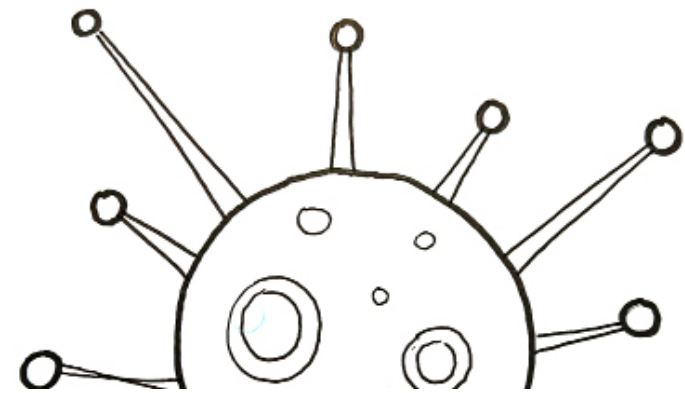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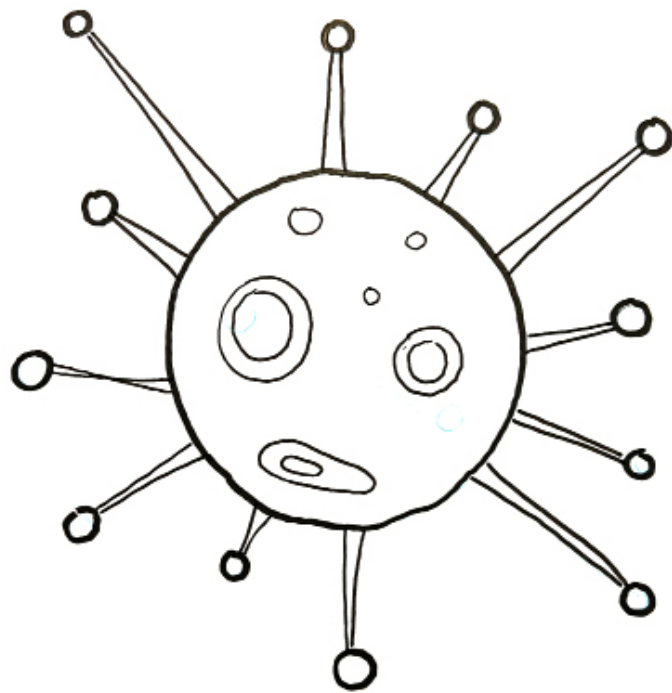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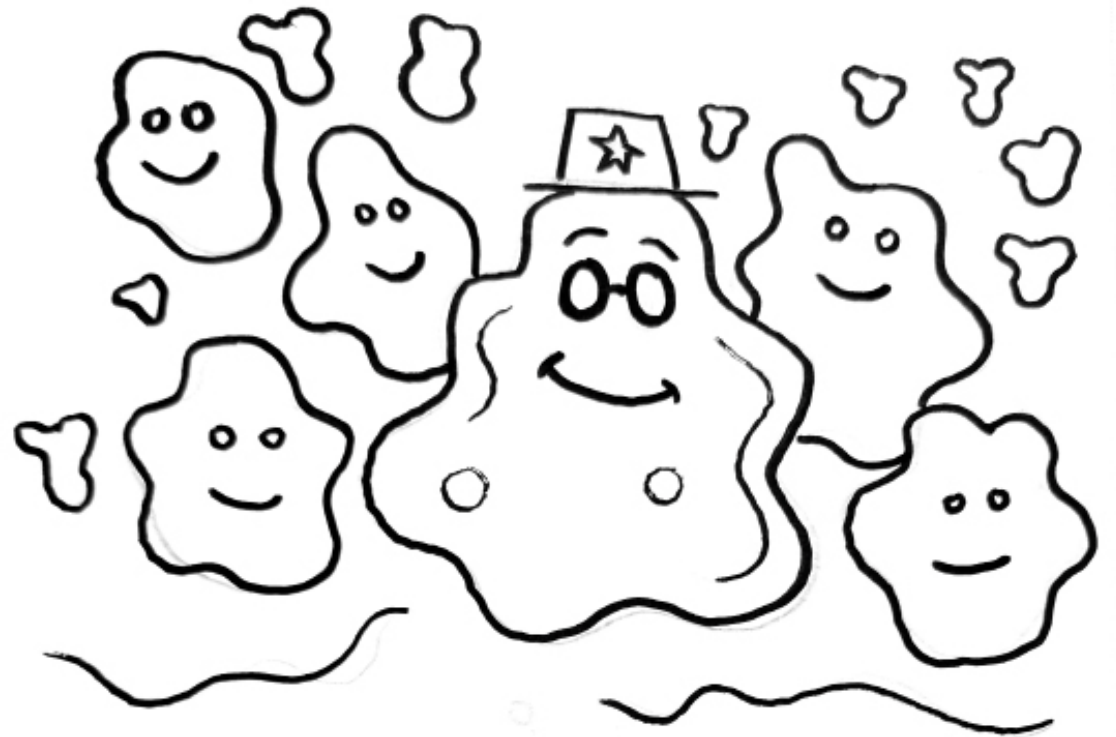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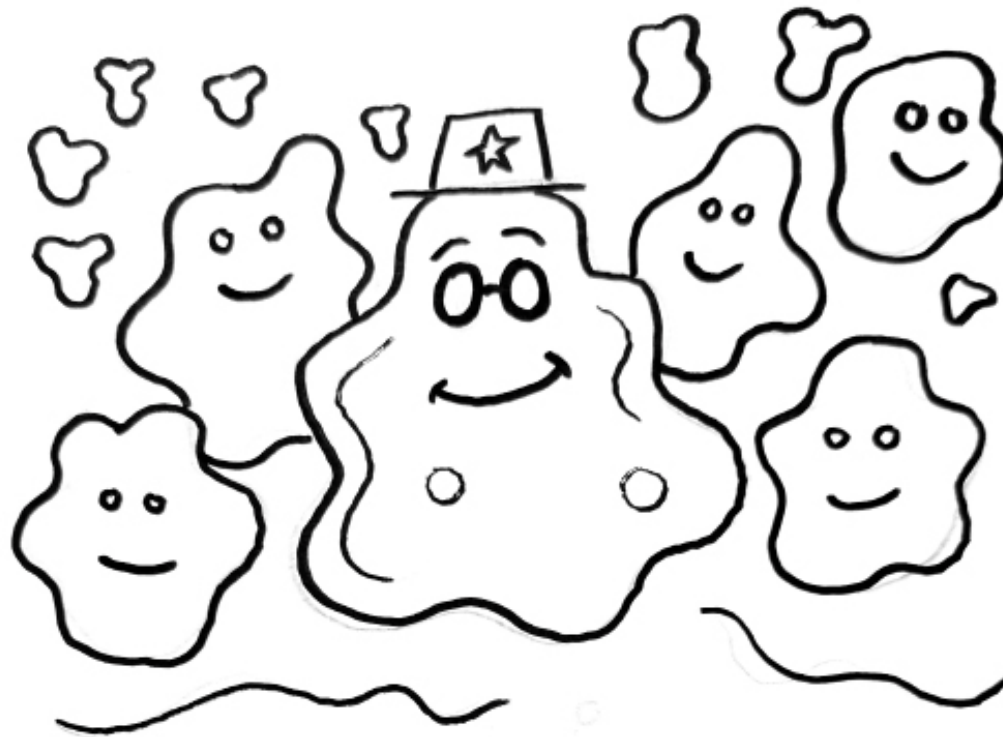
그러자 약사 선생님이 이렇게
말했어.
"안타깝네요. 아마 올해
예방접종을 건너뛰어서 더 많이
아팠을 거예요.
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
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
거랍니다."

아빠가 말했어.
"백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
몰랐네요. 그런데 백신은 우리
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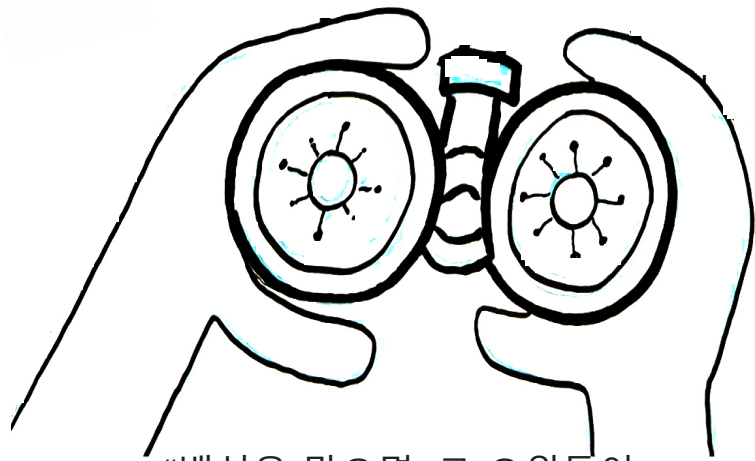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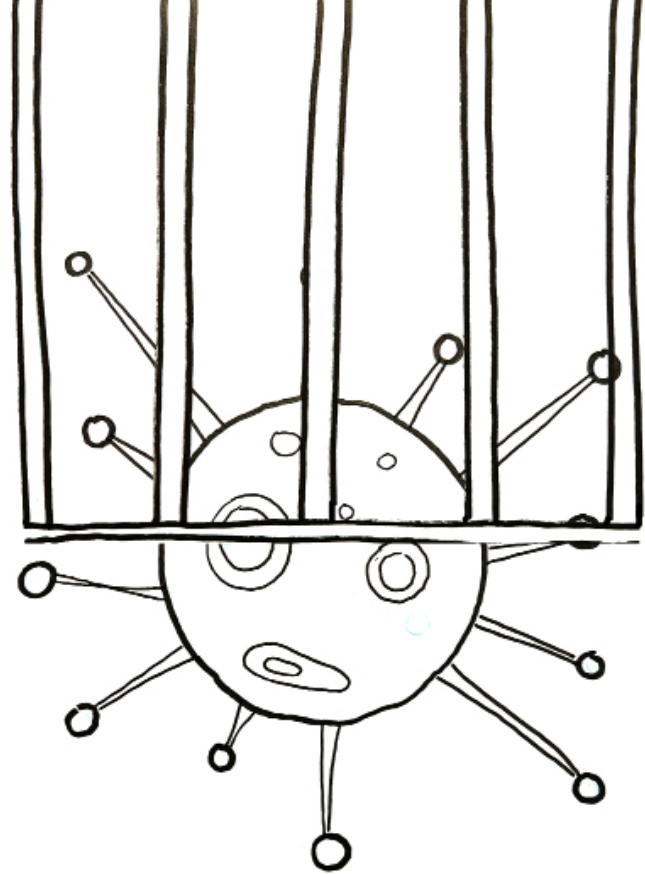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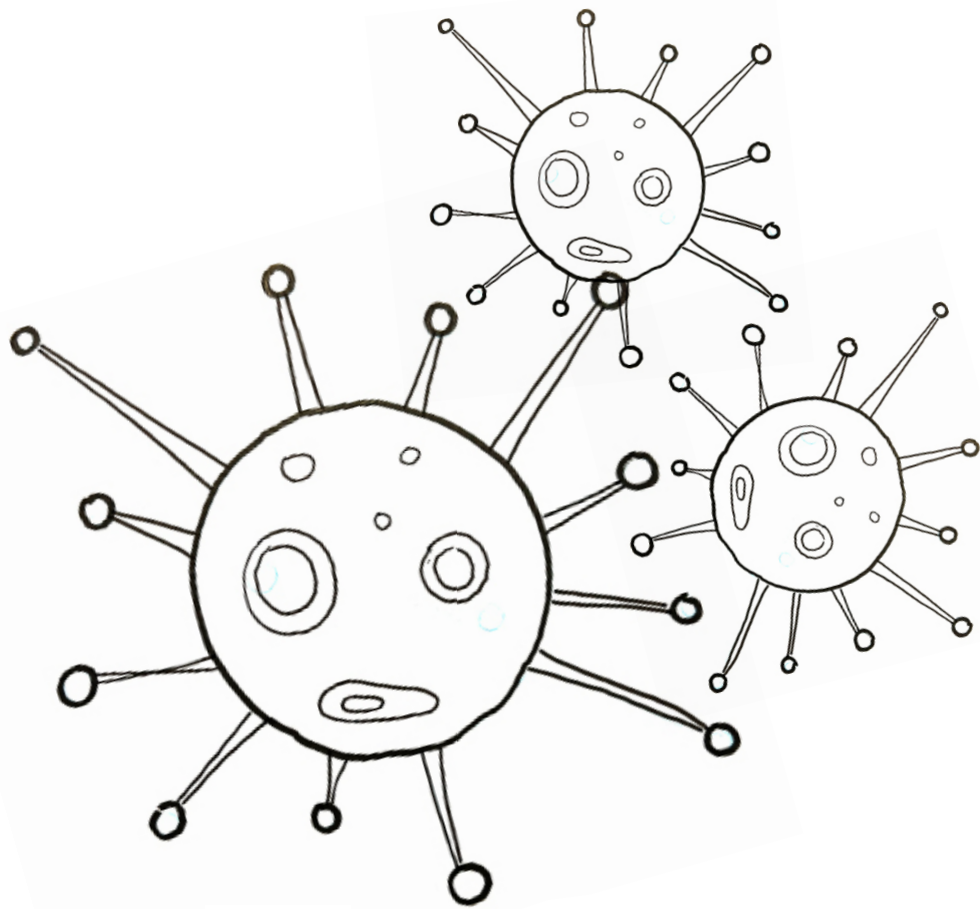
아빠는 약국에 가서 내 약을
샀고, 약사 선생님께 무슨
일이 있었는지 말했어.

약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.
"백신은 우리 몸이 감염을
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는
설명서 같은 거예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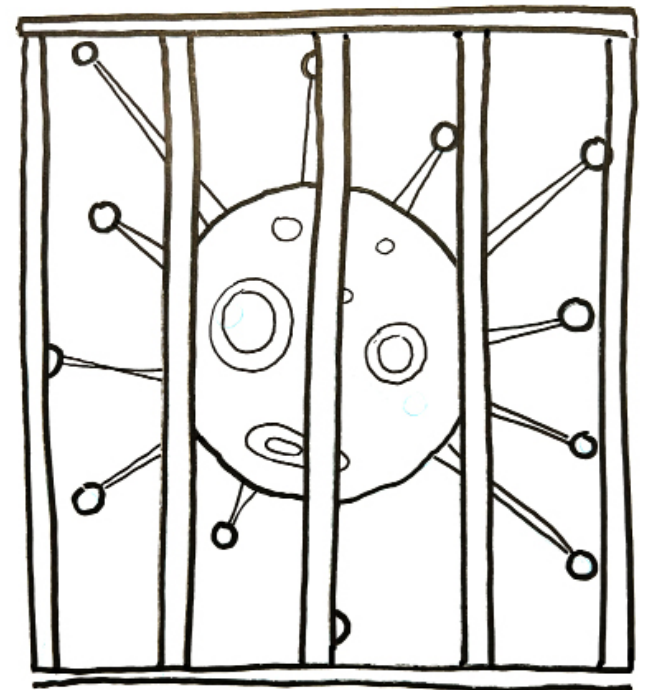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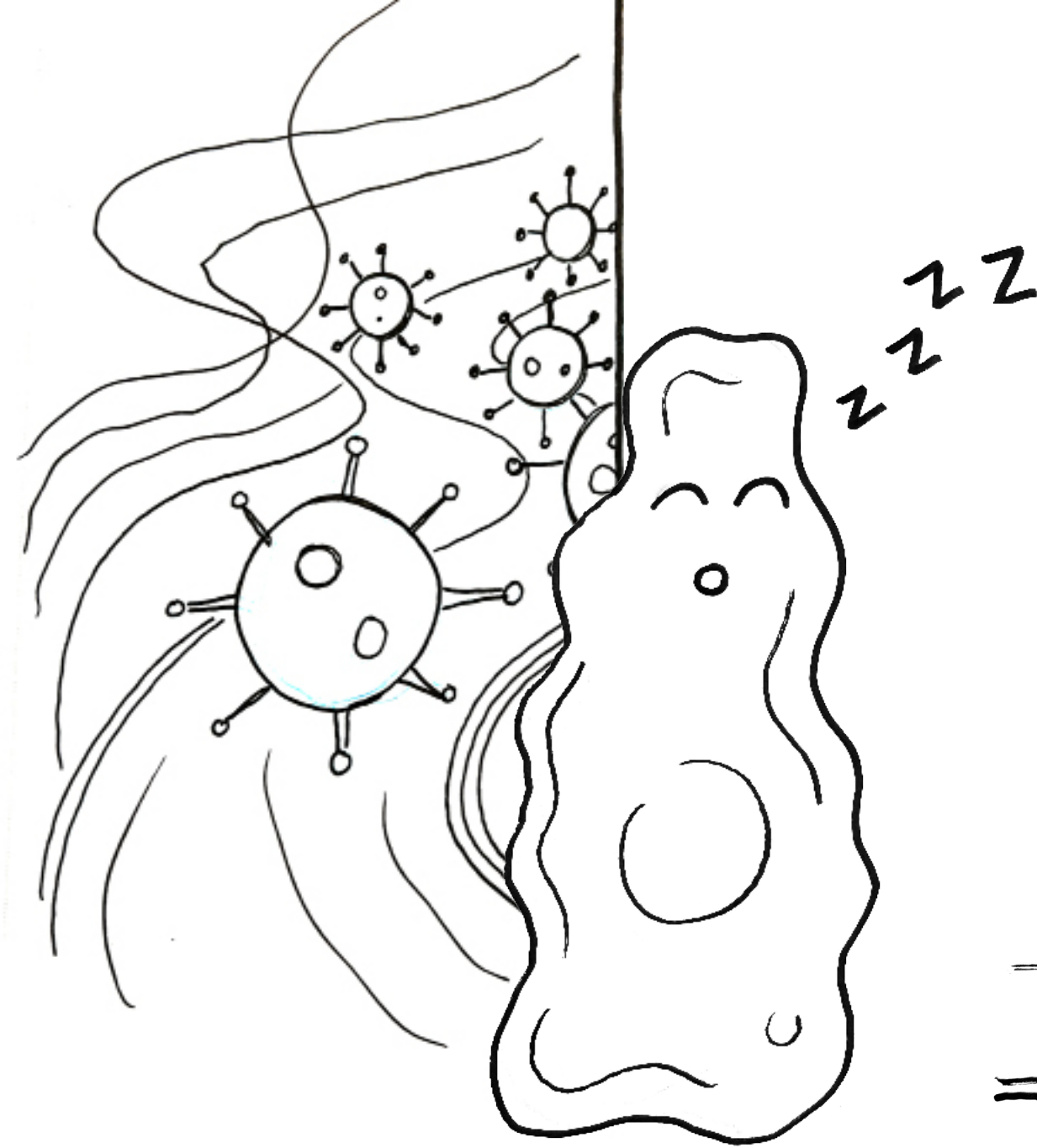
"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서,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못 들어오게 지켜주는 보안 요원 팀 같답니다."



"백신을 맞으면, 그 요원들이
 각각의 세균을 어떻게 물리칠지 배우게 돼요.
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."



그게 바로 이번에 내게 일어난
일이었어.
다행히 지금은 다 나았고, 내일은
유키랑 놀 수 있게 됐어.



“하지만 백신을 안 맞으면,
세균이 요원들을 뚫고
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
수 있어요.”



나는 여전히 주사는 싫지만, 아픈
건 더 싫어.
그래서 다음에 약사 선생님이나
의사 선생님이 예방주사를
맞으라고 하면,
아빠가 꼭 나를 데려가실 거야.





저자 소개

다니엘 콜레이코 박사는 약사이자 보건 경제학자이며,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입니다.

필리핀에서 온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,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쉬는 시간에는 소설을 쓰거나,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귀여운 뜨개질 인형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.



그림 작가 소개

매튜 마노스는 예술가이자 교육자,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돕는 전략가입니다. 디자인, 이야기 만들기, 미래에 대한 상상 사이에서 멋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그는 '베리나이스(verynice)'라는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고, 이 회사는 절반 이상의 프로젝트를 무료로 도와주는 착한 회사입니다.

또한 USC Iovine and Young Academy에서 부학장으로 일하고 있어요. 매튜는 사람들이 멋진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, 책, 활동들을 만들고 있어요.

만화도 그리고, 그림도 그리고, 외계인, 도시, 시간 여행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합니다.

교실에서도, 작업실에서도, 늘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.

텍스트 저작권 © 2025 다니엘 콜레이코

일러스트 저작권 © 2025 매튜 마노스

모든 권리 보유.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는 출판사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
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서평에 인용되는 짧은 문구는 예외로
합니다.

미국에서 인쇄됨

초판 2025년

책 표지 디자인 및 일러스트: 매튜 마노스

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


KomotoFamilyFoundation.org